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서울랜드

서울랜드에 갔다. 서울랜드는 놀이공원이다.

어제 날씨가 더울줄 알고 모자도 챙기고, 선글

라스도 챙겼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어정쩡

하다. 그래도 모자는 가져갔다. 나는 너무 기대

됐다. 드디어 서울랜드에 도착했다.

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팽이그네를

타러 갔다. 줄이 별로 없어 타기가 좋았다.

엑스 플라이터를 타러 갔다. 줄을 한참

서 놓고 무서워서 못탔다. 계속 뱅글뱅글

돌아 무서워 보여서 안탔다. 배가 고파서

오징어를 사 먹었다. 짹~ 짹~ 짹~ 먹었다.

착각의집에 갔다. 들어갔더니 반짝반짝

빛나는 거울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.

이번엔 계단, 바닥등이 모두 기울어져 자꾸

한쪽 벽으로 밀려났다. 헛갈리는 방이 나타났다.

문이 여러개 있는데 몇개의 문은 열리지

않고 문 한개만 열렸다. 그방도 겨우 통과해

나왔다. 마지막으로 급류타기를 탔다. 줄이 너무

길어 나랑언니는 해적 소굴을 타고 왔다. 급류타기

를 힘겹게 탔다. 밑으로 쭉~ 내려갈때 엉덩이가 붕

뚧었다. 구슬 아이스크림, 만주를 먹으며 집으로

돌아왔다. 다음에 또 가고 싶다.